

경제

경쟁력 강화 나선 김중호 금호타이어 대표

“업계 1위 탈환위해 합의안 통과 절실”

극적으로 타결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11~12일 예정된 가운데 8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은 김중호 대표이사는 “합의안 통과를 회사가 업계 1위를 탈환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광주 공장 기술력 좋아 고부가 제품 생산 육성”

노조 내부에서 잠정 합의안을 놓고 ‘백기투항’이라는...

▲가결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 직원들은 쌍용차 노조와는 다르다. 49년된 회사다. 쉽게 이뤄진 게 아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시장 1위 탈환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회사 안팎 상황이 예전과는 다르다.

리 직원들은 현명하다. 쌍용차 사태처럼 만신창이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백기투항 아닌 정리하고 막기 위한 것”

금호타이어 노조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합의한 것은 조합원들의 정리해고와 막기 위한 절박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는 ‘정기승조 1년 보류, 공적지원금·위로금·교통비·체력단련비·의료비 지원 1년간 유보, 품질향상 인센티브 적용, 무급순환휴직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고 일침

금호문화재단, 금호석화 주식 7만주 매수

박찬구 전 회장 견제 포석

박찬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금호석유화학 주식 7만주를 매수했다.

문 전 회장 부자(18.47%)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아 현재까지 지배권쟁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중대형 아파트 안 짓는다”

2012년까지 인력 24% 감축

오는 10월1일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체 인력의 24%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고 전 직원 연봉제를 도입한다.

역할을 개편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공사과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체 인력의 24%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고 전 직원 연봉제를 도입한다.



민주노총과 결별 8일 오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탈퇴’를 묻는 투표를 하고 있다.

믹스(Social Mix·한 단지 내에 대형과 중소형을 혼합해서 짓는 형태)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중대형을 공급하기로 했다.

쌍용차 노조 민노총 탈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삼당단체인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73.1%로 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이날 낮 12시30분~1시30분 평택·창원공장, 서울·대전·광주·부산 등 A/S지점 사업장에서 일제히 실시된 조합원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3천508명 가운데 과반수인 2천642명(투표율 75.3%)이 참여해 73.1%인 1천931명이 탈퇴에 찬성했다.

Market data table showing KOSPI, KOSDAQ, and interest rat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